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과학 글쓰기

● ● ●
길 정 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정치학, 그 중에서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전공하고 있는 저는 주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에서 유권자가 왜 투표에 참여하였는지, 어떤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선택하였는지, 해당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특성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의 함의를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비단 정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부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양적 방법론을 통해 수업의 과제물을 작성하고자 하여 글쓰기 상담실에 튜터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던 지난 학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쓰기 상담을 했던 경험들과 지난 몇 년간 학교에서의 수업 및 워크숍 등에서 통계분석 실습을 맡아 진행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과학 글쓰기라는 영역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는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이 도움이 될까 하여 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계학적 지식,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 그리고 통계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를 작성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면서도 사실상 별개의 과정입니다.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과학 글쓰기 과정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모두 요구합니다. 통계적 분석방법을 습득한 초반,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석방법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의 가설을 도출해야 하고, 그러한 가설이 검증해 내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언급해야 하며, 해당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적 방법론을 통한 분석의 결과는 연구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뿐, 이러한 점 자체가 연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결과를 구현해내는 기술적인 부분과 수량화된 분석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정확하고 엄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현상을 읽어내고 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러한 현상에 대해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축적되어 온 연구의 흐름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계적 유의미성(statistical significance)과 실질적 유의미성(substantial significance)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란, 쉽게 말해 검정통계량이 독립변수의 효과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당 통계분석의 결과를 연구 내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실질적 유의미성이란,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론적으로 축적되어 온 연구의 흐름 내에서 합리화가 가능한 결과인지, 사회적 현상과 부합하는 결과인지, 혹은 변수들의 범위와 측정단위를 고려할 때 통계분석의 결과가 나타내고 있는 독립변수의 효과의 크기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결과인지의 여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즉, 통계적 유의미성을 획득한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 혹은 현상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러한 결과는 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분석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일지라도, 변수들의 범위 및 측정단위를 고려해 보니 그 효과가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통계분석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미성과 실질적 유의미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지만 연구의 주장이 견고한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적 방법론에 대해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독자의 대상을 반드시 한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글을 쓸 때는 항상 독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분석의 결과를 리포팅해야 합니다. 통계분석의 결과를 표로 나타낼 때에는 그 표 한 가지에 통계적 검정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분석대상에 있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대상의 집단별로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현된다는, 이른바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분석 결과의 경우,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표만으로는 각 집단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단별로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것까지가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양적 방법론을 배우는 데 좀 더 욕심을 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계획하고 있으신 학부생들은 기초 및 중급통계학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점차 다양한 고급 방법론들을 접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상 연구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겠지만, 고급 방법론을 배우므로써 이전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연구 주제들을 생각해 내는 것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급 방법론이 다루고 있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와 검정할 수 있는 통계학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사회적 현상을 이러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쓰기 튜터링 및 통계분석 실습을 진행하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먼저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한 사회과학 학도로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은,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고 숙지해야 했던 부분에서 한 고비를 넘고 나서 보니 다른 분들도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셨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 글을 읽으시는 학생들께서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데 있어 시행착오의 시간 혹은 빈도를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과학 글쓰기를 시작하시는 학생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